법무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11. 25.(수)

동포의 기다림은 줄이고, 모국의 품은 넓히고!

- 법무부, 국적회복 심사기간 9개월로 단축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국적회복 신청 증가에 따른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 국적회복을 희망하는 동포들에게 보다 신속한 이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국적회복 집중처리 결과, 심사기간을 최대 7개월까지 단축하고 평균 심사기간은 기존 13개월에서 9개월로 4개월 단축하였습니다.

※ (국적회복 집중처리) 기간: '26. 8월 ~ '26. 10월, 단축목표: 13개월 → 9개월

법무부는 기존에 국적회복 전담자 1명으로 월평균 220여건을 처리하던 것을 국적회복 집중처리를 위해 추가 인원(4명)을 투입함으로써 총 4,664건(월평균 1,555건, 7배 이상 증가)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기존 13개월에서 9개월 이하로 4개월 이상 단축되어 국적신청자의 장기간 대기 부담을 완화하고, 국적회복을 희망하는 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국적신청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국적 심사 진행상황 조회란에서 귀화·국적회복 등 처리 예정 시기를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국적회복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적심사 인력 증원 추진 등 국적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책임자	과 장	최문정 (02-2110-4120)
		담당자	사무관	이호수 (02-2110-41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